

오리사육 이대로 할 것인가?

장규호 고문

오리업계는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 호황은 살얼음위를 걷는 기분이다. 이는 오리업계 종사자들이 잘해서 이룩했다기보다 역세계 운이 좋아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폭락세를 예상했던 경기가 수입이 지연되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육농가들이 판매가를 대폭인하하고 또 부화장들이 호응하여 거품이 바지면서 IMF로 어렵던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아 모처럼 오리고기의 소비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또다시 새끼오리값이 천정부지 오른 상태에서 큰오리값이 가만있겠으며 또 오리고기의 판매가격이 뛰고 동시에 그동안 가격이 싸 돼지고기와 비슷한 값이면 한번 먹어조자던 오리고기는 경쟁력을 다시 잃어간다.

다음엔 사육농가의 오리판매가 힘들어 지고 수입이 재개되면 부화장의 새끼오리 판매에 지장이 생기고 등등 이래서 오리업계는 또다시 생사의 기로에서 발전은커녕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물론 일부 부화장들은 엄청난 규모로 커졌지만 그것도 위기가 닥치면 4-5개월도 버텨내지 못한다.

그러면 눈을 안으로 돌려 오리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첫째, 높은 새끼오리 값이다.

아래 표를 보면 닭은 초생추값이 출하값의 10-15%를 차지하는데 반해 오리는 17-23%를 차지한다.

초생추 값이 높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부화장들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 외에 아무이득이 없다. 아니 부화장도 새끼오리값이 계속높으면 타업계서도 부화를 넘보게 되고 또한 과잉생산되면 그동안 벌은돈도 몇달만에 털어먹게 된다. 이는 오리업계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

< 오리와 닭의 초생추가격비교 >

구분	오리	닭	비고
초생추값	800-1300	100-600	오리생체 3Kg, 닭 생체2Kg 기준
출하가격	4,500-5500	1,000-4,000	
생산비중 초생추비	17-23%	10-15%	
사료비중	40-70%	30-85%	

둘째, 판매형태를 Kg제로 바뀌어야 한다. 산지 오리가 부족되면 최저 32-33일령 출하되고 남으면 60-70일 심지어 90일을 넘어서는 현재의

출하체계가 개선돼야 한다.

만약 가격이 올라 Kg당 2천원이 라 가정하면 2.5 Kg에 출하되면 수 당가격은 5천원이고 3Kg에 출하되면 6천원이 된다. 또 가격이 폭락하여 Kg당 가격이 1,200원이면 3Kg 출하가격은 3천6백원이 된다.

이같은 출하체계가 돼야 유통업자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 오리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새끼값도 조절이 가능한데 현재의 상태서는 사육농가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셋째, 오리의 육질을 개선해야 한다. 오리사육농가들은 어떻게하면 빨리출하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좋은 육질의 오리를 생산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오리고기를 선보이면 오리고기 소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

소, 돼지, 닭 등 모든 축종에 걸쳐 품질을 고급화한 브랜드육 생산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리는 빨리만 크면 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오리고기 유통형태가 통오리에서 발골육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육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함을 의미하며 그렇지 못하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오리기름이 불포화지방산이 높아 좋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기름이 많은 육류를 좋아하지 않으며 실제로 참치보다 더 높은 불포화지방함량의 돼지고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오리의 위생도압이다. 이것은 오리업계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물론 일부 시설이 있지만 사육농가에서 출하되는 오리가 위생도압되기 위해서는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다섯째, 환경마인드가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축산하면 환경오염의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오리는 어떤가? 오리농법이라던가 잔반 처리에 오리처럼 유용한 가축이 없다. 오리농법은 연초에 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됐고 오리농법연구회 김서정회장은 농림부장관이 추천하여 대산농촌문화재단의 특별상을 수상한바 있다.

또 필자는 남은음식물처리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연전에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바 있다. 이처럼 오리는 환경정화의 일등공신이며 최근 각 지차체별로 오리사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협회서는 한일이 무엇인가? 오히려 지난 정총시 한상룡회원이 제안한 잔반운운 등의 발언을 듣고 필자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정령 오리업계를 끌고가는 세력의 생각인가 한심한 마음 금할 수 없었다. 협회창립이후 지난 97년까지 협회를 이끌어온 노력이 한갓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오리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가축이라는 인식으로 오리고기 소비문제를 강구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여섯째, 가망고객을 개발하는 힘이 부족하다. 아니 없다고 표현하고 싶다. 현재 우리의 유통형태는 요식업소를 대상으로한 유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는 아직도 어디서 파는지 몰라 사먹지 못하고 있다.

향후 오리고기의 유통은 요식업 중심에서 가정 식탁을 중시한 방향으로 가야 소비의 저변확대가 이룩될 수 있다.

이부분은 협회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필자는 군포지역에서 배출된 음식물로 사육된 오리를 그 아파트에서 판매행사를 가져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이는 오리고기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연결고리가 생긴 것이고 이것이 바로 도농교류의 실천인 것이다.

일곱째, 오리고기 홍보가 부족하다. 오리체화시 홍보문제가 거론되지만 돈이 많이 들어 현실성이 없다. 그렇다면 오리가 잔반문제를 해결하고 오리농법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 국민들 스스로 오리고기를 소비해야겠다는 인식이 생기면 얼마나 좋은 대안인가?

이미 우리는 오리농법, 남은음식물 사료화 등으로 방송매체에서 오리가 홍보되고 있으며 최근 KBS에서 방영되는 은하의 뜰 드라마는 서인석씨 오리를 키우고 아들인 은진이

는 오리탕집을 경영하여 잘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필자는 이 드라마작가인 김혜련선생에게 감사의 말씀과 오리관련자료를 보낸바 있으나 협회장 명의로 감사장과 그 드라마가족을 명예회원증을 주는 것도 업계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95년도 회장재임시 통계를 보면 오리와 닭의 소비비율이 1:13에서 98년말 현재 1:7정도 불과 5면만에 엄청난 신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매체나 신문등 언론의 공이라고 본다. 그런데 오리업 종사자들은 오리농법이나 남은음식물사료화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홍보에 활용했는가?

돌이켜보면 한심스러운일이며 기껏한다는 일이 오리농법을 활성화시켜 봤더니 새끼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아직도 오리쌀 포장지가 소비되지않아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으며 오리농법 책자역시 다량남아 연초에 희망자들에게 무상배포한바 있다.

이같은 오리업계의 7가지 문제점은 수년전에 예상되었던 사안이고 그 책임을 느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업계종사자들은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

필자는 오리가격은 시장원리에 맡겨 자유화돼야 한다고 믿고 있으나 현재의 경우는 너무 잘못되어 있다. 새끼값이 1,300원에 농장까지 배달도 안해주고 계약금을 수백만원씩

내라는등 과연 그 새끼가 커서 출하될 때 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답은 며칠전에 국내서 두세손가락에 드는 부화장사장의 대답으로 대신한다. 「부화장 좋은시절 끝났어 곧 수입터지면 오리업계 쏙대발될텐데」 그러나 이말을 사육농가 앞에서는 못할 것이다. 나만잘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에서 새끼오리값을 1천3백원까지 올린 부화장도 문제이고 그 새끼오리를 받아 사육하는 농가도 문제이다.

사육농가,부화장은 공동운명체로 한다리가 쓰러지면 나머지 하나도

쓰러져 결국 몸통이 쓰러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 오리고기 소비바람이 불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오리업계의 앞날은 물어보나 마나 풍전등화이다.

이런때일수록 업계는 정신을 차리고 그 바람을 맞이할 자세를 갖춰야 하고 그래야만 프로 오리사육농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리업계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듣기 싫고 하기싫은 얘기를 하게된 것을 양해 바랍니다.>

♥오리(토종닭) 납품농가 및 사원모집♥

오리 (토종닭) 납품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오리로스와 통오리(토종닭)을 성남까지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납품해 줄수있는 농가 (현금결제) ◆ 수입오리고기를 성남까지 저렴하게 납품해 줄수 있는 업체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를 수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 오리고기를 수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고기,토종닭 판매에 자신이 있는 분이나 거래처를 확보하고 계신분
사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사육,도압,부화에 자신이 있으신분 초빙

상담: 0342) 709-3479 011-724-4259

선진 오리고기 판매주식회사